

바르샤, 레알 잡고 챔스 결승 선착

박지성·메시 2년만에 꿈의무대 맞대결 예고



세계 최고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산소탱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년 만에 유럽축구의 '꿈의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바르셀로나는 4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캄프 경기장에서 열린 맞수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홈경기에서 1-1로 비기면서 1, 2차전 합계 3-1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맨유는 아직 샬케04(독일)와 대결이 남아있다. 그러나 맨유는 원정 1차전에서 샬케를 2-0으로 누르고 5일 홈에서 2차전을 치른다. 유럽 도박사들은 이번이 없는 한 맨유가 결승에 오를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오는 29일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2007-2008시즌의 추억=지금까지 팬들의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박지성과 메시의 맞대결 장면은 맨유와 바르셀로나의 2007-2008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이었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던 박지성은 오른쪽 날개 메시를 토포 뚫었다.

메시가 중앙 미드필더로 옮겨 박지성도 똑같이 자리를 옮겨 메시를 무력화했다. 박지성은 당시 무려 1만1962m를 뛰면서 팀의 1-0 승리에 공헌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왼쪽)가 4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홈경기에서 카를발류와 공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은 2008-200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메시와 재회했다. 그러나 박지성이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해 오른쪽 측면에 섰던 메시와 맞붙을 기회는 없었고, 팀도 0-2로 패했다.

◇객관적 전력은 바르샤 우위=객관적 전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앞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분위기도 좋다. 프리메라리가 4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승점 8점차로 앞서 우승을 거의 확정지었다.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더비로 자신감에 차 있다. 국왕컵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패해 우승컵을 넘겨줬지만 나머지 4경기(리그 2경기·챔피언스리그 2경기)서 2승2무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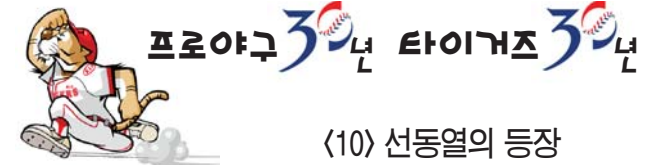
반면 맨유는 주말 2위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 리그 우승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무관에 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선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맨유가 바르셀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체력이 변

수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패스를 이어가며 전진하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전방 압박 플레이를 펼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다. 그러나 맨유가 최근 정규리그·FA컵·챔피언스리그에 모두 전력 투구한 탓에 체력 소모가 심하다.

이 때문에 바르샤와 맨유가 맞대결할 경우 박지성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다. 박지성이 메시에 강한데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유가 큰 경기에서 유독 강하다는 것도 또 다른 변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1985시즌 해태 타이거즈는 한국프로야구사를 빛낸 두 명의 걸출한 신인의 입단으로 뜰어올랐다. 광주일고-고려대를 거친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과 광주상고-연세대를 거친 '재간둥이' 이순철이 그 주인공들이었다.

해태 타이거즈는 시즌전부터 선동열 문제로 흥망을 치러야만 했다. 연봉 문제로 프로입단과 아마주어 잔류냐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선동열이 뒤늦게 입단에 합의했다. 당시로는 거액이자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계약금 1억원 시대를 열며 화려하게 프로야구 관에 뛰어든 선동열의 시작은 순탄하지 못했다. 입단 파문으로 선수 자격 시비에 휘말려 후기부터 출장이 가능했다. 선동열의 첫 등판은 7월2일 대구 삼성전이었다. 7회까지 김일웅과 치열한 투수전을 벌인 선동열은 8회 5안타를 얻어맞고 5실점 패전투수가 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리고 2연패 이후인 7월11일 인천 청보전서 구원승을 따내며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하였다.

계약금 1억 시대 열며 화려한 데뷔 11시즌 방어율 1.20 '국보급 투수'

선동열은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로 이적하기 전까지만, 1995시즌까지 11시즌 동안 146승40패132세이브, 방어율 1.20이란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며 대한민국의 '국보급 투수'로 명성을 떨쳤다.

5시즌 0점대 방어율, 5시즌 1점대 방어율을 기록했고 2점대 방어율은 2.73만 단 차례였다.

완투승 68회, 완봉승 29회, 탈삼진 1698개, 4사구 404개를 기록했다. 피홈런은 28개로 1년에 2.5개, 218명의 타자 당 1개꼴로 홈런을 허용했다.

선동열을 계승하고자하는 정몽구 투수들은 선동열의 위대한 기록보다 투구내용을 본받았으면 한다. 선동열은 두 가지 구질의 공밖에 던지지 않았다. '목직한 직구와 칼날 같은 슬라이더'로 평가되는 148Km 정도의 속구와 138Km 정도의 슬라이더였다. "내 볼을 칠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과 등반이 없는 날에도 기록실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며 상대타자를 낚아 연구하고 분석하던 '거목' 선동열을 현재의 후배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타이거즈맨으로는 유일하게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한 이순철은 공수주 3바지를 갖춘 재치있는 타자로 각광을 받았다. 타율 0.304, 12홈런 50타점 31도루의 성적으로 3루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다.

해태 타이거즈는 마운드에서는 이상우, 타격에서는 김종모와 김봉연이란 차포의 부상·후진으로 59승52패1무로 전기 3위, 후기 3위, 통산 3위로 시즌을 마쳤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광양 루니' 이종호 U-20 대표팀 이끈다

수원권 국제축구 22명 확정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5일 개막하는 수원권 국제대회에 참가할 2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제5회 수원권 국제청소년(U-20) 축구대회에 나설 U-20 대표팀 선수로 이종호(전남 드래곤즈)와 석현준(아약스) 등 총 22명을 뽑았다고 4일 밝혔다.

대표팀은 5일 나이지리아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뉴질랜드, 우루과이와 차례로 맞붙는다.

◇U-20 축구대표팀 명단 ▲감독 = 이광종 ▲코치 = 서효원 김민수 김풍주 ▲골키퍼(3명) = 노동건(고려대) 김진영(건국대) 김경민(한양대) ▲수비수(6명) = 장현수(연세대) 임창우(울산 현대) 김진수(경희대) 황도연(전남 드래곤즈) 곽해성(광운대) 조규승(선문대) ▲미드필더(10명) = 김경중 김훈성(이상 고려대) 이종권(명지대) 백성동 남성우(이상 연세대) 이종성(수원 삼성) 김영욱(전남 드래곤즈) 이기제(동국대) 박용지(중앙대) 이민수(한남대) ▲공격수(3명) = 이종호(전남 드래곤즈) 정승용(경남FC) 석현준(아약스) /연합뉴스

5월 생활체육 행사 풍성

실목이 짙어가는 5월 풍성한 생활체육 행사들이 펼쳐진다.

광주시와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2011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체육대회는 오는 14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리는 댄스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길거리 농구, 축구 등 3개 부문에 걸쳐 열리게 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이나 문의사항은 광주시생활체육회(062-717-7330) 홈페이지(http://www.gwangjusport.or.kr)를 통해 하면 된다.

www.gwangjusport.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대회들도 풍성하다.

오는 9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는 82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하는 광주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가 열린다. 14~15일 동강체육관에서는 광주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하는 탁구대회가 개최된다. 15일 황룡강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 민물낚시 대회가 열려 전국 낚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도 3000여 동호인들의 참가 속에 22일 무등경기장 등지에서 열린다.

28일에는 빛고을 체육관과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와 광주시연합회장기 농구대회가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

홍스페이스 SPACE 062-226-7567

Morden - 모던
 ITALY

ANTIQUE - 앤틱
 ITALY

Classic - 클래식
 ITALY

|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